| 현불논단 |

부처님 행한 인권평등 상기해야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고대 인도 브라만 계급사회 주도해
'아웃카스트' 관습 印발전 저해요소
카스트 제도 반대한 사문이 부처님
"출가자 계급 상관없이 석가 제자"
누구나 승가 속하면 평등함을 강조

아직도 곳곳엔 아직 인권 경시 만연
부처님이 설한 인권사상 돌이켜보길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여러 종교가 발생했는데, 인도를 벗어난 종교는 없다. 불교만이 인도를 넘어선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가 전 세계 종교로 발전한 것은 인도 문화의 색채를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과 생명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에 침입했다. 이들은 직업의 분화를 정립했는데,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바라문 · 왕족 · 서민 · 노예 계급이다. 이렇게 네 계급으로 나누어 구별했는데, 이를 카스트(caste) 제도라고 한다. 브라만들은 업과 윤회사상을 토대로 그들의 계급을 정당화하며, 사람들에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도록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카스트에 들지 못하는 '아웃카스트(out-caste)'이다. 카스트 제도에 의해 신분이 다른 계급 간에 혼인을 금지하며,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다. 현재도 인도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기원전 6세기 바라문교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한 사문이 있었는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계급일지라도 믿음이 견고해 출가한 사람은 이전의 종족(계급)과 상관없이 석가의 제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승가를 큰 바다(大海)에 비유하는데, 물이 어디서 흘러왔든 바다에 들어오면, 함께 섞이듯이 출가 전 어떤 계급이었든 승가에 들어와서는 '똑같이 평등하다' 고 보기 때문이다.

〈숫타니파타〉에는 이렇게 언급돼 있다. "사람은 출신 성분으로 인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가치는 태어날 때의 계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고 행위가 진리에 정당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지론이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천민 출신이어도 왕족 출신과 똑같이 대하였다. 천민 출신의 대표 존자가 계율제일인 우바리존자이다. 우바리는 출가하기 전, 왕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이발사이다. 왕족 출신 비구들은 우바리를 출가 교단에 받아들이는 것조차 반대하며, 부처님의 사상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우바리 이외에도 천민 출신 승려는 마부였던 챤나가 있고, 분뇨를 청소했던 수니타 등이 있다.

또 부처님께서는 승가에 여성을 출가자로 받아들였다. 당시 여성 출가자 중에서 왕족 · 바라문의 딸도 있지만, 유녀출신 비구니가 있는가 하면, 결혼에 실패한 여인도 많았으며, 천민 계층의 여인도 있었다. 〈장로게〉가 비구의 깨달음을 읊은 게송이라면, 〈장로니게〉는 비구니의 수행 경지나 오도송을 모아놓은 것이다. 〈장로니게〉는 〈장로게〉와 똑같이 결집됐는데, 비구니가 비구와 동등하게 존중받았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부처님의 인간 평등사상을 알 수 있는 경전이 있다. 〈육방예경〉인데, 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인 선생에게 동서남북 · 상하 여섯 방향에 예배하라고 하였다. "동방은 부모, 남방은 스승, 서방은 아내, 북방은 친척, 하방은 하인, 상방은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예를 올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내와 하인들이다. 여인이 대접받지 못하고, 계급제도가 심각한 인도에서 부처님은 여인과 하인에게도 늘 감사의 예를 올리라고 한 것이다.

현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인종 청소가 자행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시아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다. 또 갑질로 인해 현대판 계급제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들의 인권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2600여년 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장한 인권평등이 재조명돼야 하지 않을까?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를 변화시키는 명상과 기도

우리는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상대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처리를 못해서 답답할 때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그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주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메워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 자기 능력도 신장되는 것입니다.

직장상사가 일을 미뤄서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일은 뇌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새로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래 되면 관습에 젖어들어 시들어지고 그만 흥미를 잃게 되고,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고맙게 반갑게 여기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은 늘 생생하고 행복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정적인 삶은 의식을 깨우고 몸도 깨웁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열정적인 삶은 건강과 번영, 행복을 부릅니다. 소극적인 생각과 삶은 우울, 슬픔, 괴로움 등 불행을 불러옵니다.

화분에 심은 꽃나무에 햇빛을 쪼여주면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밝은 햇빛은 식물에게 초록색을 주고 그 꽃에게 갖가지 색깔을 주며, 그 열매에 고운 빛과 달콤한 맛을 줍니다.

이처럼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본래 내재되어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꺼내 쓰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일심으로 할 때 무한한 빛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다. 나에게는 모든 장애가 없다. 나의 생명의 원천인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은 찬란한 기쁨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굳은 신념이 생기고 열정을 낳게 됩니다. 기도로 생긴 열정은 마치 전등을 밝히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인간의 원초적인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신념이 생길 때 룰리베린 황체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혈관 속에 흘러들어 와 인체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뇌에서는 페타엔돌핀, 멜라토닌, DMT(디멜틸 트립타민)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정확하게 8헤르츠의 파동으로 심장을 진동시키고, 뇌에서도 8헤르츠의 파동이 일어나서 마음은 계속 환희롭고, 몸 전체의 기능이 활발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전국비구니회관 20주년에 부쳐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총본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이 개관 스무돌을 맞았다.

전국비구니회가 10월 18일 회관 3층 만불전에서 봉행한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법회'에는 비구니 원로회의 명사 스님들과 비구니 종회의원, 사찰음식 명장 등 40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 축하하는 마음을 나눴다.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이 추진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80년 '우담바라회'가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개명하고 재발족하면서 비구니스님들은 수행과 포교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및 복지사업을 펼칠 중심도량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건립과정은 험난했다. 부지매입부터 공사완공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전국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이 발품을 팔고 1만 원, 2만 원, 십시일반 마음이 모아져 마침내 1999년 3월, 첫 삽을 들었고 2002년 5월, 큰법당 불상 점안 봉불식 거행으로 불사를 여법하게 회향했다.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약 8400㎡(2650여 평)에 달하는 비구니회관이 완공된 것이다.

이후 비구니회관은 한국 비구니 수행전통에 대한 세미나 개최는 물론 비구니 수행교육 등을 통해 비구니 스님의 탁마를 유도했고 또 그들의 구심점이 됐다. 또 사찰음식, 다도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도심포교 및 여성불자들의 교육도량 역할을 해왔다.

20살 성인이 된 전국비구니회관은 더 큰 꿈을 꾼다. 바로 지역사회 중심이 되겠다는 발원이다. 전국비구니회관이 부처님 재세시와 같은 화합승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부대중이 힐링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 지역사회 중심 공간이 되길 염원한다.

사노위, 대사회화 문제 해결에 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사회 현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사노위는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날을 맞아 파주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무연고사망자 추모의집에서 '1017 빈곤철폐의날,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기도제'를 봉행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 치러 줄 사람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극락왕생 발원과 사회구조 변화의 과제를 알리기 위함이다.

10월 18일에는 평택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히 사노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일침을 가하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국가의 책임이요 부끄러움으로 알고 철저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 잊힌 현장을 찾아다니며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사노위의 행보는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사회적 약자 등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그 맥을 함께한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행보로 장애작가들의 작품전을 찾았고, 신당동 스토킹피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를 향한 실천적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사회적 약자, 빈곤, 노동, 기후환경 문제 등 많은 사회적 현안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치유하고 보듬는 것은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이다. 앞으로도 사노위의 대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꾸준한 활약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일시호일

응급 수술 받았지만
심장 구멍 다시 뚫려 생명 위험

스리랑카에서 온 산지와씨 염색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청구된 병원비만 22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